

暑證의 고열 증상 및 發汗解表法の 적용에 대한 고찰

- 『素問·生氣通天論』의 '因於暑' 조문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

申龍燮 · 李容範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內容提要(Abstract)

『素問·生氣通天論』中的‘因與暑，汗，煩則喘喝，靜則多言，體若燔炭，汗出而散’是說明暑證的代表性條文。但是對於條文中‘體若燔炭，汗出而散’，很多注家主張與暑證關係甚少，而與寒邪有關。大部分注釋書推從這個觀點。他們的主要觀點是：‘汗出’是一種發汗解表的方法，而對於暑證，不可使用發汗解表的方法，況且象‘體若燔炭’這種高熱現象，在暑證當中不可能出現。這種觀點是根据「傷寒論」和「金匱要略」的理論總結出來的。

至『內經』和張仲景之后，李東垣，張景岳等醫家，對暑證亦進行了廣泛的研究，但其理論根据沒能超出張仲景的理論範疇。但是張仲景從長期臨床經驗當中總結出來的，六經辯證體系很難適用與溫熱病的觀點，豐富并發展了以衛氣營血辯證和三焦辯證為中心的“溫病學”理論，并对暑證的進一步的研究，奠定了基石。

根据“溫病學”的理論，暑證會出現壯熱現象，外感寒邪，暑溫受阻時，可使用屬於發汗解表劑的新加香薷飲。如上可以得出以下結論：將『素問·生氣通天論』中的‘體若燔炭，汗出而散’可以和‘暑’聯系在一起，不一定非要和‘寒’放在一起進行說明，沒必要將這個句子移到‘因與寒’的條文上。另外，‘汗出’只是一个症狀，不是治法，可以理解為不發高熱的暑濕證的表現，可用李東垣的清暑益氣湯治療。

關鍵詞：暑證，發汗解表，體若燔炭，汗出而散。

1. 緒論

발열은 오한과 더불어 外邪에 침입 당하였을 때 인체가 발현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그런데 暑邪가 우리 몸에 침입하였을 때 고열이 나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그 치료방법으로 發汗法이 적당한가에 대하여 역대 『內經』주석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素問·生氣通天論』의 '因於暑, 汗, 煩則喘喝, 靜則多言, 體若燔炭, 汗出而散'은 『內經』에서 暑證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조문인데, 이에 대하여 현대의 주석서 중의 일부는 '體若燔炭, 汗出而

散'을 '因於寒' 조문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¹⁾, 일부 주석서는 그대로 暑證

1) 원문을 개정한 예는 배병철 주해, 『黃帝內經讀解』, 한국, 서울, 성보사, 2000년. 21쪽.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中, 中國, 北京, 北京出版社, 1999년, 1243쪽. 원문을 개정하지는 않았지만 '寒'의 조문으로 옮기는 것에 동조한 예는 傅貞亮 主編, 『內經講義』, 中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6년, 138쪽.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滙粹』,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년. 38쪽. 홍원식 校譯, 『黃帝內經素問直譯』, 한국,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1년, 8쪽. 王琦 等 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한국, 서울, 성보사, 1983년. 17쪽.

에 대한 항목으로 두고 있다.²⁾

‘體若燔炭, 汗出而散’을 寒邪와 연결시켜 설명하려는 주장은 暑證에는 ‘體若燔炭’과 같은 고열의 증상이 나타날 수 없으며, 또한 치료방법으로 發汗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기본 전제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본인은 역대 주요 『內經』 注釋家들의 견해 및 暑證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 특히 暑邪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溫病學에서의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暑證에 고열이 날 수 있는가 그리고 發汗解表法을 치료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 아울러 『素問·生氣通天論』의 본 조문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역대 주요 『內經』 注釋家들의 견해

1) 王冰

王冰은 “이는 곧 능히 고요히 있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여 寒毒에 상하여 여름에 이르러 暑病으로 변한 것이다. …, 병이 暑에 인하면, 마땅히 땀으로 배출시켜야 한다. 發表를 하지 않으면, 邪熱이 안을 공격하여 몸 가운데와 바깥이 모두 뜨겁게 되니, 그러므로 가슴이 달아오르면서 팔다리를 가만 두지 못하며, 숨을 헐떡이고, 자주 크게 숨을 내쉬면서 그 소

리를 내는 것이다. …, 이는 汗法이 가능한 이치를 거듭 밝힌 것이다. 몸이 마치 달구어진 솥과 같은 炎熱의 증상을 앓는 자는 어떻게 하여야 구하겠는가? 반드시 땀을 내는 방법을 써야 하니, 그렇게 하면 바로 熱氣가 퍼져 흩어진다.”라고 하여³⁾,

‘體若燔炭’과 같은 고열의 상태는 寒邪가 겨울에 침입하여 잠복하고 있다가 여름이 되어 暑病으로 변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暑病에서 이러한 고열의 상태가 발생하고, 그 치료법은 또한 發汗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 滑壽

滑壽는 『讀素問鈔』에서 “因於寒, 體若燔炭, 汗出而散. 因於暑, 汗, 煩則喘喝, 靜則多言”⁴⁾이라 하여 ‘體若燔炭, 汗出而散’의 조문을 앞으로 옮겨 ‘因於寒’ 아래에 위치시키고 있다.

3) 朱丹溪

朱震亨은 “『內經·生氣通天論』에서 病因을 말한 4개의 章 중에서, 제 1장에서 논한 ‘因於寒’의 ‘欲如運樞’이하 3문구[起居如驚, 神氣乃浮까지]는 뒤 문장과 뜻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니, 모두 군더더기 문장이다. ‘몸이 달구어진 솥덩이처럼 열이 날 때 땀을 내어 푼다’라는 두 구절은 마땅히 이곳에 옮겨야 한다. 일반적으로 寒邪가 처음에 肌表에 침입하여 邪가 울체되어 열이 나는 모습이 마치 달구어진 솥덩이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땀이 나게 되면 풀어진다. 이는 仲景 선생의 麻黃湯을 쓰는 종류인

2) 예를 들면 박찬국 저,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한국,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39쪽. 용재박경교수화갑기념 편집, 『素問研究集成』 권 1, 한국,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2001년, 94쪽.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년, 34쪽.

3) 王冰 撰,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년, 39쪽. “此則不能靜慎, 傷於寒毒, 至夏而變暑病也. …, 言病因於暑, 則當汗泄. 不爲發表, 邪熱內攻, 中外俱熱, 故煩躁, 喘, 數大呵而出其聲也. …, 此重明可汗之理也. 爲體若燔炭之炎熱者, 何以救之? 必以汗出, 乃熱氣施散.”

4) 滑壽 編輯, 汪機 續注, 『讀素問鈔』,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년, 83쪽.

것이다. 두 번째 장에서 논한 “因於暑”에서 暑는 君火가 병이 된 것이다. 火는 움직이면 흩어지는 성질이 있으니, 그러므로 自汗 煩渴 多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여⁵⁾,

‘欲如運樞，起居如驚，神氣乃浮’의 12글자를 衍文이라 하고 ‘因於寒’ 뒤에는 뒷 문구의 ‘體若燔炭，汗出而散’의 8글자를 이어 붙였다. 즉 그는 ‘體若燔炭’과 같은 고열의 증상에는 寒邪가 처음 肌表에 침입하여 울체되어 고열이 나기 때문에 ‘因於寒’이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 것이고, 暑邪에 대하여는 고열이 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寒으로 인한 고열의 상태에는 麻黃湯 종류 즉 發汗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았다.

4) 馬蒔

馬蒔는 “여름의 暑氣에 침입을 당하면, 그 몸은 반드시 땀이 나며, 혹은 번조하여 動하게 되면 숨이 가쁘고 숨소리가 거칠게 날 것이며, 만약 번조하지 않고 靜할 때에도 또한 말을 많이 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暑證은 熱證이니, 그러므로 動할 때에나 靜할 때에나 모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온몸의 열이 달구어진 솥덩이 같다면 반드시 바로 땀을 내면 邪가 땀을 따라서 흩어질 것이다. 생각건대 여기에서 땀을 내서 푼다라고 하였는데, 「熱論」에서는 ‘대개 傷寒을 앓다가 溫病이 된 것 중에서 하지일보다 먼저 발생한 것은 溫病이라고 하고, 하지일보다 나중에 발병한 것은 暑病

이라고 한다. 暑病은 마땅히 땀과 같이 그 사기가 빠져나가니, 땀이 나는 것을 멈추게 해서 안된다.’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두 편의 내용을 볼 때, 暑證에 마땅히 發汗하여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朱丹溪 滑伯仁 두 사람은 暑證에 발한법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여 결국 이 두 구절을 뒷 문장의 ‘因於寒’ 조문의 脫簡으로 여겼으니, 寒이 아니면 發汗法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風寒暑濕熱에 모두 發汗法을 쓸 수 있다는 것으로 모르는 것이니, 만약 暑證이라고 한다면 후세에 香薷飲⁶⁾ 및 목통 택사 복령 저령 등의 利水시키는 약을 써서 치료하였으니, 더욱 편리하고 유익함이 된다. 대개 「難經」에서는 暑가 心을 상하는 것으로써 正經自病으로 여겼으니, 心은 少陰君火이고 暑 또한 火에 속하여 오직 暑만이 능히 心을 상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은 水가 濕한 곳으로 가고 火가 燥한 곳으로 가는 것과 같은 뜻이다. 다만 暑가 참으로 心을 손상하고 熱도 또한 氣를 손상하였는데, 또 다시 발한한다면 汗은 바로 心의 液인지라, 熱이 이미 心을 상하고 氣를 상한 데다가 땀이 많아지면 또한 반드시 亡陽證을 일으킬 텐데, 心과 小腸은 서로 表裏가 되는 지라, 지금 利水의 약을 복용하면 暑로 하여금 小腸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서 방광으로 흘러들어 제거될 것이니, 병이 쉽게 물러가게 되면서도 元氣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이 朱丹溪 滑伯仁 두 사람이 의문에 이르게 됨을 피하지 못한 이유는 모두 「熱論」의 뜻을 고찰할 줄을 알지 못하였을 뿐이다. 내가 일찍이 「難經本義」에 주를 달면서 아울러 이러한 뜻을 49難 中暑항목의 아래에 기재하였다.”라고 하여⁷⁾,

5) 朱震亨 撰,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生氣通天論病因章句辯」, 「格致餘論」, 「丹溪醫集」,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년, 35쪽. “「內經·生氣通天論」病因四章, 第一章論因於寒, 欲如運樞, 以下三句與上文意不相屬, 皆衍文也. 體若燔炭, 汗出而散兩句, 當移在此. 夫寒邪初客於肌表, 邪鬱而爲熱, 有似燔炭, 得汗則解, 此仲景麻黃湯之類也. 第二章論因於暑, 暑者, 君火爲病, 火主動則散, 故自汗煩渴而多言也”

6) 전통의학연구소, 「동양의학대사전」, 한국, 서울, 정보사, 2000년. 2590쪽. “香薷飲 : 炒扁豆·厚朴(去粗皮, 薑汁灸) 각 250g, 香薷 500g.”

7) 馬蒔 撰, 田代華 主校,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년, 19-

暑證은 熱證이므로 煩燥가 있는 動의 상태나 煩燥가 없는 靜의 상태나 모두 그 증상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喘喝, 多言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朱丹溪가 '體若燔炭, 汗出而散'의 조문을 '因于寒'으로 옮긴 것에 대하여, 風寒暑濕熱의 外感에 모두 發汗法을 쓸 수 있으며, 또한 「熱論」에 “暑邪가 땀을 따라서 나간다”고 한 것에 근거하여 暑證에서도 發汗法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그러한 임상 의 실례로 당시에 暑證에 香薷飲 등의 發汗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 치료할 때에 利水之劑를 쓰면 더욱 좋다고 하였다. 특히 暑邪가 火에 속하여 心으로 들어가 心을 손상하고, 그 열이 氣를 손상하여 發汗法을 쓰면 亡陽證을 유발할 것인데, 利水之劑를 사용하면 心과 表裏가 되는 小腸에 작용하여 그 暑邪가 小腸을 통하여 膀胱으로 흘러 들어가 제거되어, 亡陽證에 이르지도 않고 元氣도 손상하지 않는다고 그 치료기전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5) 吳崑

吳崑은 “그러나 이러한 陽氣를 기르는 것은

20쪽. “因于夏之暑氣者, 其體必有汗, 或煩躁而動, 則爲喘喝, 或不煩躁而靜, 則亦不免于多言. 暑證者, 熱證也, 故合動靜而皆不能靜者如此. 一身之熱, 如燔炭然, 必從而汗之, 則邪從汗散矣.” 잔주] “按此曰汗出而散, 「熱論」曰: ‘凡病傷寒而成溫者, 先夏至日爲病溫, 後夏至日爲病暑, 暑當與汗皆出不止.’ 觀此二篇, 則暑證當發汗無疑矣. 朱丹溪 滑伯仁疑暑之不可汗也, 遂以此二句爲上文‘因于寒’之脫簡, 以爲非寒則不可發汗, 殊不知風寒暑濕熱皆可發汗, 若暑證, 後世用香薷飲及木通 澤瀉 茯苓 猪苓 等利水之藥而愈者, 尤爲便益.” 잔주] “蓋「難經」以暑傷心者爲正經自病, 要知心屬少陰君火, 暑亦屬火, 惟暑爲能傷心, 如水就濕, 火就燥之義. 但暑固傷心, 熱亦傷氣, 而又復發汗, 則汗乃心之液, 熱既傷心傷氣, 汗多又必亡陽, 惟心與小腸爲表裏, 今服利水之劑, 使暑從小腸而下行, 滲入膀胱而去, 則病易却, 而元氣無損矣. 此朱滑二氏所以不免于致疑者, 皆不知考「熱論」之義耳. 余嘗注「難經正義」, 并載此義于四十九中暑之下.”

바로 일상 생활하는 데에 있는 것이니, 만약 일상 생활할 때에 청정할 수 없어 감짝 놀란 듯 번거롭고 요란하게 한다면, 神氣가 이에 떠서 흩어져 衛氣가 튼튼하게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衛氣가 튼튼해지지 못하면 그 밖을 호위하는 작용을 잃어 아래 문장에 나오는 外感의 질환이 있을 것이다. 옛날 판본에는 ‘欲如運樞’에서 여기까지 3구절이 ‘因于寒’의 아래에 잘못 놓여 있었다.”

“사람이 寒에 손상되면 발열 증상이 나타나니, 그러므로 ‘體若燔炭’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를 치료하는 방법은 邪氣가 表에 있는 것이니, 마땅히 땀을 내야하며, 땀이 나면 寒邪가 흩어질 수 있다.”

“暑는 陽邪가 되어 만물을 疏泄시킬 수 있으니, 그러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自汗하게 하고, 暑邪가 裏로 들어가면 同氣相求하여 心으로 들어가는데, 心은 神明의 주가 되니, 心이 暑邪를 받으면 神明이 어지러워지므로, 가슴이 달아오르면 숨이 가쁘게 되어 숨소리가 크게 나며, 가슴이 조용할 때에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순서가 없게 된다.”라고 하여⁸⁾,

‘欲如運樞, 起居如驚, 神氣乃浮’의 12글자를 앞의 ‘衛外者也’구절의 뒤, ‘因于寒’의 앞으로 옮겼고, ‘因于寒’ 뒤에는 ‘體若燔炭, 汗出而散’의 8글자를 당겨 옮겼다. 그는 ‘欲如運樞, 起居如驚, 神氣乃浮’에 대하여는 寒暑濕氣 등의 외부의 邪氣가 인체에 침입하기 위한 전체조건, 즉

8) 吳崑 撰, 劉之謙 외 2인 編著, 「黃帝內經素問吳注評析」, 中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8년, 14쪽. “然養此陽氣, 正在起居之時, 若于此時不能清淨, 煩擾如驚, 則神氣乃浮散而不固, 不固則失其衛外之用, 而有下文外感之患. 舊本欲如運樞至此三句誤在因于寒下.” “人之傷于寒也, 則爲病熱, 故云體若燔炭. 治之之法, 在表者宜汗之, 汗出則寒可得而散矣. 舊本體若燔炭二句在靜則多言下.” “暑爲陽邪, 能疏泄萬物, 故令人自汗. 暑邪入裏, 同氣相求則入于心, 心爲神明之主, 心受暑邪則神明亂, 故煩則喘喝而大聲, 靜則多言而無次也.”

일종의 陽氣가 손상된 상태의 의미로 보았다. 그리고 '體若燔炭, 汗出而散'에 대하여는 朱丹溪의 학설을 그대로 따라 '因于寒'의 원문을 '體若燔炭, 汗出而散'의 앞으로 옮겼다.

6) 張介賓

張介賓은 張潔古와 李東垣의 학설을 계승 발전시켜, 暑證을 陰證과 陽證으로 세분하였다.

張潔古는 "가만히 있다가 얻은 병을 中暑라 하고, 움직이다가 얻은 병을 中熱이라고 한다. 中暑는 陰證이고 中熱은 陽證이다."라고 하여⁹⁾, 中熱과 中暑를 구분하여, 움직이다가 얻은 병은 中熱이며 陽證이고, 가만히 있다가 얻은 병은 中暑이고, 陰證이라고 하였다.

李東垣은 이 학설을 더욱 발전시켜, "暑熱을 피하여, 깊은 마루나 큰 집의 그늘에서 얻은 것을 中暑라 하는데, 그 병이 반드시 頭痛, 惡寒, 身形拘急, 肢節疼痛, 煩心, 肌膚火熱, 無汗 등의 증상이 있으니, 이는 房室의 陰寒이 막은 바 되어, 온 몸의 陽氣로 하여금 伸越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만약 行人이나 농부가 해 가운데에서 일하다가 얻은 것이라면, 中熱이라 하는데, 그 병은 반드시 頭痛, 發躁熱, 惡熱 등으로 괴로워하고, 肌膚를 문지르면 매우 뜨겁고, 반드시 매우 목이 말라 물을 먹고자 하며, 땀이 매우 많이 나고, 움직일 기운이 없으니, 바로 하늘의 熱이 밖에서 肺氣를 상한 것이다."라고 하여¹⁰⁾, 暑熱을 피하여 깊은 마

루나 큰집의 그늘에 있다가 陰寒이 침입하여 陽氣를 막아서 얻은 것을 中暑라 하고, 더운 여름 땀밭 가운데에서 일을 하다가 열이 肺氣를 손상한 것을 中熱이라 하였다. 또한 中暑인 경우에는 陰寒이 陽氣의 伸越을 막아 병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張介賓은 이러한 張潔古 李東垣의 학설을 이어, "暑에는 陰陽의 두 가지 證이 있으니, 陽證은 中熱에 인한 것이고, 陰證은 中寒에 인한 것인데, ..., 이 구절[煩則喘喝, 靜則多言]에서 말한 바는 暑의 陽인 경우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汗出 煩躁하고, 숨을 헐떡이며, 큰 소리로 부르면서 목 쉰 소리가 나는 것이다. 만약 그 고요한 경우에는 또한 말을 많이 함을 모면하지 못하니, 대개 邪熱이 陰을 손상하여 精神이 안에서 어지러워지는지라, 그러므로 말에 순서가 없는 것이다.", "이[體若燔炭, 汗出而散]는 暑의 陰證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몸의 열이 만약 달구어진 숯덩이 같다면, 반드시 땀이 나와 비로소 邪가 흩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¹¹⁾,

暑證은 여름의 열병¹²⁾으로 陰暑 陽暑의 두 가지가 있다고 보아, 본문을 앞의 '煩則喘喝, 靜則多言'은 陽暑에 대한 설명으로, '體若燔炭, 汗出而散'은 陰暑에 대한 설명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陰暑를 다시 들로 나누어 東垣이 말한 더운 날씨에 서늘한 곳에서 더위를 피하다가 오히려 寒에 적중하여 일어나는 것 이외에, 生冷한 음식을 많이 먹어 寒邪가 內에 침입하여 일어나는 것¹³⁾을 덧붙인 점이 張潔古, 李

9) 張介賓 編著, 「疾病類」, 「類經」,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년, 388쪽. "潔古云: '靜而得之爲中暑, 動而得之爲中熱, 中暑者陰證, 中熱者陽證.'"

10) 上揭書, 「類經」, 288쪽. "東垣曰: '避暑熱於深堂大廈得之者, 名曰中暑, 其病必頭痛惡寒, 身形拘急, 肢節疼痛而煩心, 肌膚火熱無汗, 此爲房室之陰寒所遏, 使周身陽氣, 不得伸越也. 若行人或農夫於日中勞役得之者, 名曰中熱, 其病必苦頭痛發躁熱惡熱, 捫之肌膚大熱, 必大渴引飲, 汗大泄, 無氣以動, 乃爲天熱外傷肺氣也.'"

11) 上揭書, 「類經」, 388쪽. "暑有陰陽二證. 陽證因於中熱, 陰證因於中寒, ..., 此節所言, 言暑之陽者也, 故爲汗出煩躁, 爲喘, 爲大聲呼喝. 若其靜者, 亦不免於多言, 蓋邪熱傷陰, 精神內亂, 故言無倫次也." "此言暑之陰者也. 故體熱若燔炭, 必須汗出, 邪乃得散, 如「熱病篇」曰: '暑當與汗皆出, 勿止', 此之謂也."

12) 張介賓 著, 「雜證模」, 「景岳全書」,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년, 327쪽. "暑本夏月之熱病."

東垣의 학설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치료법으로는 陰暑 중에서 더위를 피하다가 서늘한 곳에서 中寒한 경우에는 溫散法을, 혹은 寒冷한 음식을 먹어 '寒邪在內'한 경우에는 溫中法을 제시하였고, 陽暑인 경우에는 氣의 虛實과 火의 심한 정도를 살펴 或補或淸하여 그 氣를 굳건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¹⁴⁾ 이러한 그의 주석은 결국 '體若燔炭'과 같은 고열의 상태가 寒에 손상하여 발생하며, 그 치료도 發汗法을 써야 한다고 한 朱丹溪 吳崑 등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다만 經文을 고치지 않고 陰暑라는 표현을 씀으로서 暑證과 고열 그리고 發汗法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의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그는 元氣가 虛한 사람이 이러한 병이 잘 걸리므로 먼저 溫補의 방법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⁵⁾ 또한 그는 陽暑를 仲景의 中暈로 인식¹⁶⁾하여, 氣가 심하게 虛하지 않고 火證만 있는 경우에는 白虎湯¹⁷⁾ 益元散¹⁸⁾ 등으로 치료한다¹⁹⁾고 하였다.

7) 張志聰

張志聰은 “그러므로 寒이 침입하였을 때에는 우리 몸의 陽氣가 마땅히 지도리를 움직임이듯이 하여 밖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 莫仲超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생각컨대 寒이 침입하여 처음 皮毛의 氣分을 손상함에 陽氣를 얻어 열로 化하는데, 열이 비록 성하나 죽지는 않으니, 이는 능히 지도리를 움직여 밖으로 응하는 것이다.”,

“하늘의 陽邪가 사람의 陽氣를 손상하여 두 개의 陽이 서로 합쳐지니, 그러므로 몸이 마치 달구어진 솥덩이 같은 것이다. 陽熱의 邪가 내 몸의 陰液을 얻어 풀어지니, 그러므로 땀이 나면서 邪가 흩어지는 것이다. 생각컨대 『傷寒論』에서 말하기를, '병들어 항상 저절로 땀이 나는 것은 이는 衛氣가 不和한 것이다. 다시 그 땀을 나게 하여 營衛가 조화롭게 된다면 병이 낫는다.'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暑邪가 침입하여 땀이 나는 것은 暑邪가 陽을 손상하여 衛氣가 不和한 것이다. 땀을 내어 푸는 것은 營衛가 조화롭게 되어야만 땀이 나서 邪氣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²⁰⁾,

寒邪가 침입하였을 때에는 陽氣가 이에 응하여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열이 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暑邪가 침입하는 것을 하늘의 陽邪가 인체의 陽氣를 손상하는 兩陽相搏의 상태로 보아 '體若燔炭'의 고열상태가 온다고 보았다.

13) 上揭書, 『景岳全書』, 327쪽. “又有不慎口腹, 過食生冷, 以致寒涼傷臟.”

14) 上揭書, 『景岳全書』, 327쪽. “此以夏月受熱, 故名陽暑. 治宜察氣之虛實, 火之微甚, 或補或淸, 以固其氣.”

15) 上揭書, 『類經』, 388쪽. “觀此二證, 一中於熱, 一中於寒, 皆謂之暑, 但治寒宜散, 必汗出而解, 治熱宜涼, 必熱淸而愈. 然夏月浮陽在外, 伏陰在內, 若人以飲食情慾傷其內, 或冒暑貪涼勞役過度傷其外, 及元氣素虛之輩, 最易患此. 如『刺志論』曰: ‘氣虛身熱, 得之傷暑’者, 是也. 治此者, 又當以調補元氣爲主, 然後察其寒熱, 而佐以解暑之劑. 若果爲陰寒所中, 則附子薑桂, 先哲每多用之, 不可因炎熱在外, 而忽舍時從證之良法也.”

16) 上揭書, 『景岳全書』, 327쪽. “陽暑者, 乃因暑而受熱者也, 在仲景即謂之中暈.”

17)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742쪽. “白虎湯: 知母 180g, 石膏 500g, 炙甘草 60g, 粳米 6홉”

18)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1840쪽. “益元散: 滑石 180g, 炙甘草 30g”

19) 上揭書, 『景岳全書』, 329쪽. “若氣不甚虛, 而但有火證者, 宜白虎湯, 或益元散主之.”

20) 張志聰 著, 鄭林 主編, 『素問集注』, 『張志聰醫學全書』, 中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년, 14쪽. “是故因于寒, 而吾身之陽氣當如運樞以外應. …, 莫仲超曰: 按傷寒始傷皮毛氣分, 得陽氣以化熱, 熱雖盛不死, 此能運樞而外應者也.”, “天之陽邪, 傷人之陽氣, 兩陽相搏, 故體若燔炭. 陽熱之邪, 得吾身之陰液而解, 故汗出乃散也. 按『傷寒論』曰: 病常自汗出者, 此衛氣不和也, 復發其汗, 營衛和則愈. 故因于暑而汗出者, 暑傷陽而衛氣不和也. 汗出而散者, 得營衛和而汗出乃解也.”

고, 이럴 때에 衛氣가 不和하여 땀이 나는데, 다시 發汗의 방법을 써서 營衛를 조화롭게 하여야 그 邪氣를 풀 수 있다고 보았다.

8) 張琦

張琦는 “因于寒의 구절은 잘못되었으니, 순서가 마땅히 ‘體若燔炭’의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²¹⁾,

‘因于寒’을 아래의 ‘體若燔炭’의 구절 앞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였으니, 朱丹溪 吳崑 등과 마찬가지로 暑邪가 침입하였을 때에는 ‘體若燔炭’과 같은 고열이 나지 않고 발한의 방법도 쓸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欲如運樞, 起居如經, 神氣乃浮’에 대하여는 吳崑과 마찬가지로 아래 문장의 外邪가 침입할 수 있는 전제조건 의 의미로 보고 있다.²²⁾ ‘體若燔炭’의 고열 상태가 발생하는 기전에 대하여는 風寒이 침입하여 營衛를 손상시키고, 陽을 울체시켜 열이 나는 것으로 보았고, 이럴 때에는 發汗法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²³⁾

暑邪에 발한의 방법을 쓸 수 없는 근거로는, “暑는 즉 『金匱』에 나오는 喝病이다. 『金匱』에서는 汗下溫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王冰은 暑邪에는 마땅히 發汗法으로 邪氣를 배출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니, 잘못이다. 寒毒에 상하여 여름이 되어 暑病이 된다고 말함에 이르러서는 또한 王叔和가 溫熱에 대하여 틀리게 말한 것에 근거한 상태에서 또한 잘못을 덧붙였다”라고 하여²⁴⁾,

『金匱要略』에 喝病에는 發汗의 방법을 금한다는 조문을 예로 들고 있다. 『金匱要略』에서는 만약 發汗의 방법을 사용하면 惡寒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였고 처방으로 白虎加人蔘湯²⁵⁾을 제시하고 있다.²⁶⁾ 이러한 기재로 보아 暑邪는 비록 六淫의 하나로 表로부터 裏로 들어오지만, 병이 있는 위치는 發汗法을 쓸 정도의 表가 아닌 清熱을 시킬 정도의 陽明經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金匱要略』에 만약 發汗을 시키면 惡寒이 심해진다고 한 것은 發汗으로 表의 衛氣(陽氣)가 더욱 손상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9) 胡天雄

胡天雄은 “王冰이 『熱論』을 注하면서, ‘暑邪는 마땅히 땀과 함께 모두 내보내야 하니, 땀내는 것을 그치지 마라’라는 조문에서 ‘暑邪는 마땅히 땀내는 방법을 써서 하여금 낮게 해야 하니, 반대로 땀내는 것을 그쳐 그 병으로 하여금 더 심하게 해서는 안된다.’라 하였고, 이 조문을 注하면서, ‘이는 가히 땀을 내야 하는 이치를 거듭 밝힌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王冰이 ‘汗出’ 두 글자를 일종의 治法으로 여겨 해석함을 당연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王冰은 임상가는 아닌지라, 暑病에 身熱 自汗의 병증은 다만 清熱法이 마땅하여, 열을 맑히기만 하면 땀이 저절로 그칠 것이니, 땀을 그치는 방법도 분명 틀린 방법이지만, 땀을 내는 방법

21) 張琦 著, 王洪圖 點校, 『素問釋義』, 中國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1998년, 7쪽. “因于寒句誤, 次當在體若燔炭之上.”
 22) 張琦 著, 王洪圖 點校, 『素問釋義』, 中國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1998년, 7쪽. “是以陽氣能固也. 若起居驚擾, 則神氣浮越, 而邪因入之, 如下所次.”
 23) 上揭書, 『素問釋義』, 8쪽. “上因于寒句當在此. 風寒傷其營衛, 則陽鬱而爲熱, 宜以汗解”
 24) 上揭書, 『素問釋義』, 7쪽. “暑則『金匱』之喝

病, 『金匱』喝病禁汗下溫針, 而王氏謂暑當汗泄, 謬矣. 至謂傷于寒毒, 至夏變爲暑病, 又因叔和溫熱之謬而加誤焉者也.

25)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741쪽. “白虎加人蔘湯: 知母 180g, 石膏 한 되, 炙甘草 60g, 粳米 6홑, 人蔘 90g.”

26) 李克光 主編, 『痙濕喝病脈證治』, 『金匱要略』,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년, 76쪽. “太陽中喝, …, 若發其汗, 則惡寒甚.” 77쪽. “太陽中熱者, 喝, 是也. 汗出惡寒, 身熱而渴, 白虎加人蔘湯主之.”

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朱丹溪 등도 ‘汗出’을 治法으로 이해 하였으나, 그러나 暑病에 땀을 내는 것이 마땅 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이 두 구절을 ‘因于寒’ 조문의 아래로 옮겼으니, 寒에 상함에 인 하여 열이 날 때에야 비로소 땀을 내어 열을 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기실 위 문장의 ‘喘喝’, ‘多言’ 및 아래 문장의 ‘首如裹’, ‘軟短’, ‘弛長’, ‘爲腫’은 모두 일정한 병의 원인 아래에서 증상을 묘사한 것으로, 이곳에 유독 돌연히 한 치법을 들어 스스로 그 문세를 어지럽힐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두 구절은 마땅히 위 문장의 ‘暑汗’ 두 글자의 병리 기전에 대한 해석으로서 인체 본래의 몸에 갖추고 있는 바의 스스로를 구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 「舉痛論」의 ‘더우면 땀구멍이 열려, 땀이 크게 난다’는 문장과 더불어 뜻이 한가지이다.”라고 하여²⁷⁾,

‘體若燔炭, 汗出而散’에 대하여 暑에 손상되었을 때에 만약 열이 심해지면 저절로 땀이 나서 열이 풀어지는 기전이 우리 몸에 있다고 보았으니, 暑邪에 손상되었을 때에는 고열이 나지만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며, 특히 汗出에 대하여는, 위와 아래의 문장에 치료 방법을 설명한 예가 없는데,

27) 胡天雄 著, 『素問補識』, 中國醫藥科技出版社, 中國 北京, 1991년, 23쪽. 王注「熱論」‘暑當與汗皆出, 勿止’條云: ‘暑病當與汗之令愈, 勿反止之, 令其甚也’, 注此云: ‘此重明可汗之理’, 知王氏把汗出二字, 當作一種治法來理解. 王非臨床家, 不知暑病身熱自汗者, 只宜清熱, 熱清則汗自止, 止汗固然不對, 發汗同樣是錯誤的; 丹溪等人也把汗出作治法理解, 但知暑病不宜發汗, 因將此兩句移至‘因于寒’條下, 以爲因傷寒而發熱, 才能‘汗出而散’. 其實上文‘喘喝’, ‘多言’, 及下文‘首如裹’, ‘軟短’, ‘弛長’, ‘爲腫’, 都是在一定病因之下, 描述症狀, 不會獨于此處突然提一治法, 自亂其例. 此兩句應該對上文‘暑汗’二字的機理解釋, 說明人體本身所具有的自我救濟作用, 與「舉痛論」‘臑則腠理開, 汗大泄’義同.”

유독 이곳에 치료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고, 暑에 손상되었을 때에는 다만 清熱만 시켜주면 된다고 하여, ‘汗出’을 치료법으로 본 이전의 견해를 부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 「內經」, 주석가들의 견해를 다시 내용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역대 「內經」 주석서 중에서 비교적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최초의 서적은 王冰의 注釋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王冰은 ‘體若燔炭, 汗出而散’에 대한 주를 달면서 ‘汗出’ 두 글자를 發汗 치료법으로 이해하였고²⁸⁾, 바로 이점이 후대 학자들이 논쟁을 일으키게 된 발단이 되었다. 논쟁을 일으키게 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暑證의 치료는 「金匱要略」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白虎加人蔘湯 등의 清熱法이 마땅하고 發汗解表法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고, 둘째는 첫 번째의 가정 하에서 본다면 ‘體若燔炭’은 寒邪가 陽氣를 抑鬱하여 발생하는 太陽病 傷寒 表證의 발열 증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제일 먼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內經」의 원문을 고친 사람은 滑壽이고, 朱丹溪는 滑壽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또한 ‘體若燔炭’은 寒邪가 陽氣를 抑鬱하여 발생한 傷寒 表證이고, ‘汗出而散’은 麻黃湯으로 發汗解表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吳崑도 역시 朱丹溪의 학설을 그대로 따르면서, 다만 朱丹溪가 衍文이라고 주장했던 ‘欲如運樞, 起居如驚, 神氣乃浮’를 ‘因于寒’의 앞에 위치시켜, 寒 暑 濕 氣 등의 外邪가 침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陽氣不足의 상태를

28) 王冰은 「素問·熱論」의 주석에서도 暑病에 는 마땅히 發汗方法을 사용하여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上揭書, 『黃帝內經素問校注』, 423쪽. “暑當與汗皆出, 勿止”, 王冰注 “然暑病者, 當與汗之令愈, 勿反止之, 令其甚也.”

표현하는 전제어로 보아 衍文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張琦는 吳崑의 주석을 그대로 따르면서, ‘煩則喘喝, 靜則多言’의 暑證에는 白虎加人蔘湯을 써야 하고, 만약 太陽表證에 사용하는 發汗解表法을 사용하면 陽氣를 더욱 虛하게 하여 惡寒이 심해진다는 『金匱要略』의 中喝 조문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馬蒔, 張景岳, 張志聰, 胡天雄 등은 『內經』의 원문을 그대로 두어 ‘體若燔炭, 汗出而散’을 그대로 暑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주장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다.

馬蒔는 滑壽 朱丹溪의 주장에 반대하고, 『素問·熱論』에 “暑病은 마땅히 땀과 같이 그 邪氣가 빠져나가니, 땀이 나는 것을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조문을 그 근거로 제시하여, 暑證에는 發汗法을 쓸 수 있고, 더욱이 六氣의 外感에는 모두 發汗法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당시에 暑證에 發汗劑인 香薷飲과 利水劑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어 땀이 많이 나는 暑證에 발한을 시키면서 利水之劑를 사용하면 心으로 들어간 暑邪가 心과 表裏관계에 있는 小腸으로 빠져나가 亡陽證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香薷飲은 『太平惠民和劑局方』에 처음 나오는 辛溫解表劑로서 解表散寒, 化濕和中하여 여름철에 感寒하고 濕이 脾胃를 손상한 병증을 다스리는 약²⁹⁾이며, 또한 注中에서 利水之劑의 사용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馬蒔는 이 조문을 여름철에 寒과 濕에 손상된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張景岳은 暑證에 나온 조문을 둘로 나누어 ‘煩則喘喝, 靜則多言’을 暑의 陽證으로, ‘體若燔炭, 汗出而散’을 暑의 陰證으로 보고, 陰證은 陰寒의 邪氣가 침입한 것으로 보아, 결국 ‘體若燔炭, 汗出而散’을 寒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

러한 그의 견해는 朱丹溪, 吳崑 등이 ‘體若燔炭, 汗出而散’을 ‘因於寒’에 이어 붙인 것과 그 내용 면에서는 비슷하나 이 조문을 그대로 暑證에 속하게 하고 暑의 陰證으로 분류한 것이니, 원문을 개정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앞에서 원문을 고친 학자들과 구별된다.

張志聰은 ‘體若燔炭’의 고열상태를 陽邪인 暑邪가 인체의 陽氣를 손상하는 兩陽相搏의 상태로 보았고, 또 衛氣가 不和하여 땀이 나는데, 다시 發汗의 방법을 써서 營衛를 조화롭게 하여야 그 邪氣를 풀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치료 면에서의 그의 견해는 傷寒論의 中風 表虛證에서 營衛不和로 땀이 나는 증상을 치료할 때, 發汗시켜 營衛調和의 상태로 만드는 것과 같다.

胡天雄은 ‘體若燔炭, 汗出而散’은 暑證에서는 發汗法을 쓰지 않고 清熱法을 쓴다는 『金匱要略』의 견해와, 上下文례로 보았을 때 發汗이라는 치료법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暑邪에 침입 당하였을 때에는 ‘體若燔炭’과 같은 고열의 상태가 오려 하면 우리 몸에서 저절로 땀이 나서 풀어지는 자연적인 생리기전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暑證에서는 고열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體若燔炭, 汗出而散’에 대한 해석은 고열이 났을 때에 發汗法을 사용하는 것과 고열이 나려고 할 때 자연적인 생리기전으로 땀이 나면서 고열의 상태가 풀어지는 즉 暑證에 高熱이 나지 않는 두 가지의 경우로 요약할 수 있다.

2. 『內經』 및 그 이후의 暑證에 대한 연구

29)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2590쪽.

『素問·生氣通天論』의 ‘體若燔炭, 汗出而

散'과 관련된 『內經』 주석가들의 논쟁은 그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暑邪로 인하여도 '體若燔炭'과 같은 고열의 상태가 나느냐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 치료에 있어서 發汗解表의 방법을 쓸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 논쟁은 滑壽 朱丹溪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근거는 주로 『傷寒論』 『金匱要略』 등 후대 임상서적이거나 혹은 후대의 임상적 경험이다. 『內經』에서는 暑邪의 성질 및 몇 가지 특징적인 증상, 그리고 간단한 치료의 원칙에 대하여 제시되어 있고, 『傷寒論』 이후 후대의학적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暑證의 연구에 많은 발전이 있어 왔다. 그러한 임상적 경험의 누적은 『內經』 원문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잘못된 점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촉발하였으며, 이 논쟁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內經』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 조문을 이해하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內經』 내의 유관조문과 비교 검토하여 그 내용을 『內經』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내용과 관련된 후대 의학자들의 견해로 다시 그 조문을 재조명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內經』에서의 暑證

『內經』에서 『素問·生氣通天論』 이외의 다른 곳에 기재된 暑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素問·五常政大論』에서는 “火運이太過한 해에는 무더운 여름의 기운(炎暑)이 펼쳐지고, …, 그 변동에 있어서 불꽃의 작열하는 기운이 함부로 어지럽게 하며, 그 공덕에 있어서는 따뜻하고 더운 기운이 울체되어 찌게 하며, 그 변화는 火熱의 기운이 세차게 모든 것을 끓어오르게 한다.”³⁰⁾라고 하여 暑證에 炎熱

升散 開泄의 특성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고³¹⁾, 『素問·離合眞邪論』에서는 “무더우면(暑) 기운이 축축해진다.”³²⁾라 하고, 『靈樞·歲露論篇』에서는 “暑邪가 침입하면 피부가 완만해져 腠理가 열린다.”³³⁾라 하고, 또 『素問·熱論』에서는 “暑病은 마땅히 땀과 같이 그 邪氣가 빠져나가니, 땀이 나는 것을 멈추게 해서 안된다.”³⁴⁾라 하였으니, 暑證에는 땀이 남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素問·瘧論』에서는 “陽이 盛하면 外가 熱하고 陰이 虛하면 內가 熱한데, 안과 밖이 모두 熱하면, 숨이 가쁘면서 갈증이 나니, 그러므로 찬 물을 마시고자 한다. 이는 모두 여름에 暑邪에 손상된 것이다.”³⁵⁾라 하여 暑證에 內外가 모두 열이 많고 煩躁 口渴 飲冷 喘息 등의 증상이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다. 『素問·刺志論』에서는 “氣가 虛하면서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은 暑邪에 손상되어 생긴 것이다.”³⁶⁾라 하고, 또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 “炎火가 물려와서 기후가 몹시 더우면(大暑至), …, 백성들이 기운이 적어지고, 피가 외부로 나와 돌아다니고, 精液이 減少하는 등의 병을 앓는다.”³⁷⁾라

30) 上揭書, 『黃帝內經素問校注』, 926쪽. “赫曦之氣, …, 炎暑施化, …, 其動炎灼妄搖, 其德暄暑鬱蒸, 其變炎烈沸騰.”

31) 上揭書, 『黃帝內經研究大成』 中, 1250쪽.

32) 上揭書, 『黃帝內經素問校注』, 379쪽. “暑則氣淖澤.”

33)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 下冊,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년. 424-425쪽. “余聞四時八風之中人也, 故有寒暑, 寒則皮膚急而腠理閉, 暑則皮膚緩而腠理開.”

34) 上揭書, 『黃帝內經素問校注』, 423쪽. “暑當與汗皆出, 勿止.”

35) 上揭書, 『黃帝內經素問校注』, 459쪽. “陽盛則外熱, 陰虛則內熱, 外內皆熱, 則喘而渴, 故欲冷飲也. 此皆得之夏傷於暑.”

36) 上揭書, 『黃帝內經素問校注』, 648쪽. “氣盛身寒, 得之傷寒. 氣虛身熱, 得之傷暑.”

37) 上揭書, 『黃帝內經素問校注』, 1025쪽. “炎火行, 大暑至, …, 故民病少氣, …, 血溢流注, 精液乃少.”

고 하여, 暑證에는 열이 많이 나서 氣와 진액의 손실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內經』에서의 暑證에 대한 기제는 暑邪가 炎熱 升散 開泄 등의 성질이 있어, 밖으로 暑邪에 침입을 받아 發熱의 증상이 나타나고, 또한 내부적으로도 陰液이나 氣를 많이 소모하여 氣虛 煩渴 喘息 津液減少 등의 증상이 나타남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素問·生氣通天論』의 ‘因於暑, 汗, 煩則喘喝, 靜則多言’에 나타나는 증상과 거의 같으며, 다만 ‘多言’은 『生氣通天論』에만 나타난다.

그리고 『內經』에서는 暑證 치료에 대하여 중요한 원칙을 한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素問·熱論』에서 “暑病은 마땅히 땀과 같이 그 邪氣가 빠져나가니, 땀이 나는 것을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³⁸⁾라고 하여, 땀이 혹시 많이 나더라도 절대로 수렴제로 止汗하여서는 안된다고 한 점이다.³⁹⁾

이러한 『內經』에서의 暑證 기제로 볼 때, 暑證에 고열은 충분히 날 수 있다고 보여지며, 發汗解表劑의 사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볼 수 있다.

2) 『內經』 이후의 暑證에 대한 연구

(1)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暑證

『內經』 이후 중요한 暑證에 대한 논의는 張仲景의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수록되어 있다.

『傷寒論』 『金匱要略』에서는 太陽中熱 혹은 中喝의 표현으로 暑證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는 暑證이 表熱이 아닌 裏熱과 많은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증상의 설명에서 口渴, 口開 前板齒燥 등이 나오고, 또한 치료방법으로 『金匱要略』에서 白虎加人蔘湯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暑證이 陽明裏熱과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⁴⁰⁾

두 번째는 身重 身熱疼重 脈遲 夏月傷冷水 등 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 또한 제시된 처방에 上焦 濕을 吐法으로 다스리는 一物瓜蒂湯⁴¹⁾이 있다는 점이다.⁴²⁾

세 번째는 치료 면에서 暑證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만약 發汗法을 쓴다면 惡寒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邪氣가 있는 위치가 表部가 아님을 의미하고, 또한 한것 發汗하여 陽氣만 소모하면 병이 더욱 위중해짐을 표현한 것이다. 이를 앞의 陽明裏熱과 관련시켜 보면 暑證의 病位가 陽明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發汗法을 쓰면 惡寒이 심해진다는 설명과 白虎加人蔘湯의 처방에서 볼 수 있듯이 暑證에 氣가 虛하다는 점이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만약 溫鍼을 시술할 경우 助陽하여 火熱이 안을 공격하여 발열이 더욱 심해진다고 하였으니, 暑證에 熱이 많다는 특징을 나타낸

38) 上揭書, 『黃帝內經素問校注』, 423쪽. “暑當與汗皆出, 勿止”.

39) 물론 이 문구에 대하여는 王冰과 같이 暑證을 치료하려면 發汗法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上揭書, 『黃帝內經素問校注』, 423쪽. “暑當與汗皆出, 勿止”, 王冰注 “然暑病者, 當與汗之令愈, 勿反止之, 令其甚也.”

40) 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년. 53쪽. “太陽中熱者, 喝是也. 其人汗出惡寒, 身熱而渴也.” “太陽中喝者, …, 口開, 前板齒燥.” 및 책, 『金匱要略』, 77쪽. “太陽中熱者, 喝, 是也 …, 白虎加人蔘湯主之”

41)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1862쪽. “一物瓜蒂湯: 瓜蒂 14개”

42) 上揭書, 『注解傷寒論』, 53쪽. “太陽中喝者, 身熱疼重, 而脈微弱, 此亦夏月傷冷水, 水行皮中所致也.”, “太陽中喝者, 發熱惡寒, 身重而疼痛, …, ”, 및 책, 『金匱要略』, 79쪽. “太陽中喝, 身熱疼重, 而脈微弱, 此以夏月傷冷水, 水行皮中所致也, 一物瓜蒂湯主之.”

것이며, 그리고 여러 번 下法을 쓰면 淋症이 심해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暑證에 열로 인한 진액 소모가 심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³⁾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傷寒論』 『金匱要略』에서는 暑證을 衛氣가 虛한 陽明 裏熱 및 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暑證에서 『體若燔炭』과 같은 고열의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법으로는 發汗解表劑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傷寒論』과 『金匱要略』 이후의 暑證 연구

晉의 王叔和는 『脈訣』에서 暑證의 脈을 虛脈이라 규정하고, 怔忡 驚悸 등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⁴⁴⁾, 暑證脈을 虛脈으로 본 것은 『內經』에서 언급한 ‘氣虛身熱’, 『傷寒論』 『金匱要略』의 衛氣가 虛하다는 것과 서로 의미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怔忡 驚悸’ 등은 일종의 神志 증상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素問·生氣通天論』에 기재되어 있는 ‘多言’ 증상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暑證에 神志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宋의 朱肱은 『南陽活人書』에서 먼저 濕에 손상된 상태에서 暑邪에 적중되어 濕熱이 합쳐져서 濕溫病을 일으키는데, 이때에는 發汗法을 쓸 수 없고 白虎加蒼朮湯⁴⁵⁾을 써야 한다고 하여⁴⁶⁾, 暑와 濕의 관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서술하기 시작하였고 發汗解表法을 반대하였다. 宋의 嚴用和는 暑證의 脈이 虛한 것은 『內經』에서 말한 ‘熱傷氣’하기 때문이고, 傷寒과의 감별점은 暑證에 ‘背寒面垢’의 증상이 있는 것이며, 또한 치료할 때에는 냉수를 마시거나 차고 습한 곳에 눕지 않으며, 溫養하는 방법을 쓸 것을 주장하여⁴⁷⁾, 暑證에는 氣가 많이 소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金의 劉完素는 中暑에 表裏를 불문하고 통치방으로 白虎湯⁴⁸⁾을 쓰며, 세분하면 여름철 감기에 發熱 煩渴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五苓散⁴⁹⁾ 桂苓甘露飲⁵⁰⁾, 黃連香薷飲⁵¹⁾, 雙解散⁵²⁾ 등을 쓸 수 있으며, 또한 裏熱이 심하여 腹이 滿하고, 脈이 沈하여 下法을 쓸 수 있는 경우는 大承氣湯⁵³⁾, 三一承氣湯⁵⁴⁾을 쓰며, 半表半

쪽. “其人傷于濕，因而中暑，濕熱相薄，則發濕溫病，…，不可發汗，汗出必不能言，耳聾不知痛所在，身青色變，名曰重暈，如此死者，醫殺之耳。白虎加蒼朮湯主之。”

47) 上揭書,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279-280쪽. “夫中暑所以脈虛者，蓋熱傷氣而不傷形也。…，是以暑喜傷心，令人身熱頭痛，狀類傷寒，但背寒面垢，此為異耳。…大抵中暑悶亂，切不可便與冷水，及臥冷濕地，得冷則死。惟當溫陽，…，近屢見江浙之間，中暑多有搗搗不省人事者，醫經所不載，…，此中暑而又傷風，俗命名謂之暑風。…，宜以溫熱水化蘇合香丸灌之，俟其稍甦，却以黃連香薷散，加羌活煎服，作效者多矣。”

48)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742쪽. “白虎湯: 知母 180g, 石膏 500g, 炙甘草 60g, 粳米 6홉.”

49)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1556쪽. “五苓散: 猪苓(去皮)·白朮·茯苓 各 21.6g, 澤瀉 37.2g, 桂枝(去皮) 15g”

50)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158쪽. “桂苓甘露飲: 茯苓·澤瀉 各 30g, 白朮·肉桂·猪苓 各 15g, 滑石 120g.”

51)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2590쪽. “黃連香薷飲: 香薷 45g, 黃連 60g, 厚朴(去皮) 60g. 어떤 책엔 扁豆가 더 들어가 있음”

52)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1397쪽. “雙解散: [益元散]·[防風通聖散] 各 210g. 매회 9g씩에 蔥白 5寸, 鹽豆豉 50알, 生薑 3쪽을 가해 水煎服.”

53)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490쪽. “大承氣湯: 大黃(酒洗) 12g, 厚朴(炙, 去皮) 25g, 枳實

43) 上揭書, 『注解傷寒論』, 53쪽. “若發汗則惡寒甚，加溫鍼則發熱甚，數下之則淋甚。”

44) 陳夢雷 等編, 『暑門』,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第六冊,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78쪽. “脈虛身熱爲傷暑. 自汗怔忡驚悸多”

45)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741쪽. “白虎加蒼朮湯: 知母 180g, 炙甘草 60g, 石膏 한 되, 蒼朮·粳米 各 90g.”

46) 上揭書,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第六冊, 297

裏인 경우에는 小柴胡湯⁵⁴⁾ 涼膈散⁵⁶⁾ 天水散(益元散) 등을 쓸 수 있다고 하여⁵⁷⁾, 기본적으로 暑證을 陽明熱證으로 인식하고 그 정도에 따라 表裏를 검해야 될 경우와 완전히 有形의 熱證으로 전변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黃連香薷飲을 사용한 것은 解表散寒 化濕和中的 發汗治法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金의 李東垣은 스승 張潔古의 ‘靜而得之爲中暑, 動而得之爲中熱’의 학설을 이어서 暑證을 陰證과 陽證으로 구분하면서도, 陰證인中暑는 房室의 陰寒이 陽氣를 억울시켜 생긴 것이기 때문에 傷寒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므로中暑로 이름 붙일 수 없으며, 치료도 辛溫輕揚之劑로 發散해야지 溫中藥인 大順散⁵⁸⁾을 사용하면 안으로 煩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하여⁵⁹⁾, 결국中暑를 暑證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素問·刺志論』에 “氣虛身熱, 得之傷暑”라 한 것은 熱이 氣를 손상시킨 것이

며, 「痿論」에 나오는 骨痿는 여름철에 濕熱 때문에 생긴 것이라 보고 모두 暑證으로 보았다.⁶⁰⁾ 그는 暑病의 원인을 飲食失節이나 勞倦所傷으로 보고 그 치료는 「瘧論」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陽明을 다스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清暑益氣湯⁶¹⁾을 창방하였다.⁶²⁾ 이러한 그의 견해는 결국 暑證을 氣虛와 濕熱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張潔古 李東垣이 제시한 暑證을 陰陽으로 나누는 분류방식은 이후 暑證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체계로 받아들여 광범위하게 퍼졌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東醫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채용되고 있다.⁶³⁾

(灸) 0.5개, 芒硝 0.3홉.”

- 54)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987쪽. “三一承氣湯 : 大黃·芒硝·厚朴·枳實 각 15g, 甘草 30g, 生薑 3쪽.”
- 55)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1144쪽. “小柴胡湯 : 柴胡 25g, 黃芩·人蔘·灸甘草·生薑 각 9g, 半夏 0.05되, 大棗 1.2개”
- 56)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1443쪽. “涼膈散 : 大黃·朴硝·甘草 각 600g, 梔子仁·薄荷葉·黃芩 각 300g, 連翹 1250g.”
- 57) 上揭書,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六冊, 260쪽. “中暑之證, …, 無問表裏, 通宜白虎. 夏月感冒, 發熱煩渴, 五苓散, 桂苓甘露飲, 黃連香薷飲, 雙解散. 或裏熱甚, 腹滿而脈沈可下者, 大承氣湯下之, 或三一承氣湯, 尤妙. 半表半裏者, 小柴胡涼膈天水.”
- 58)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490쪽. “大順散 : 甘草 15kg, 乾薑·杏仁(去皮尖,炒)·肉桂(去粗皮,灸) 각 2kg.”
- 59) 上揭書,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六冊, 280쪽. “如避暑熱于深堂大廈得之者, 名曰中暑. …, 爲房室之陰寒所遏, 使周身陽氣不得伸越, 大順散主之. 若行人或農夫于日中勞役得之者, 名曰中熱. …, 乃爲天熱外傷肺氣, 蒼朮白虎湯主之. …, 彼避暑于深堂大廈, 得頭疼惡寒等證

- 54)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987쪽. “三一承氣湯 : 大黃·芒硝·厚朴·枳實 각 15g, 甘草 30g, 生薑 3쪽.”
- 55)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1144쪽. “小柴胡湯 : 柴胡 25g, 黃芩·人蔘·灸甘草·生薑 각 9g, 半夏 0.05되, 大棗 1.2개”
- 56)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1443쪽. “涼膈散 : 大黃·朴硝·甘草 각 600g, 梔子仁·薄荷葉·黃芩 각 300g, 連翹 1250g.”
- 57) 上揭書,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六冊, 260쪽. “中暑之證, …, 無問表裏, 通宜白虎. 夏月感冒, 發熱煩渴, 五苓散, 桂苓甘露飲, 黃連香薷飲, 雙解散. 或裏熱甚, 腹滿而脈沈可下者, 大承氣湯下之, 或三一承氣湯, 尤妙. 半表半裏者, 小柴胡涼膈天水.”
- 58)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490쪽. “大順散 : 甘草 15kg, 乾薑·杏仁(去皮尖,炒)·肉桂(去粗皮,灸) 각 2kg.”
- 59) 上揭書,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六冊, 280쪽. “如避暑熱于深堂大廈得之者, 名曰中暑. …, 爲房室之陰寒所遏, 使周身陽氣不得伸越, 大順散主之. 若行人或農夫于日中勞役得之者, 名曰中熱. …, 乃爲天熱外傷肺氣, 蒼朮白虎湯主之. …, 彼避暑于深堂大廈, 得頭疼惡寒等證者, 蓋傷寒之類耳, 不可以中暑名之. …, 若欲治之, 則辛溫輕揚之劑發散可也. 夫大順散一方, 蓋溫中藥也. …, 若以此藥治靜而得之之證, 吾恐不能解表, 反增內煩矣.”
- 60) 上揭書,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六冊, 281-282쪽. “『刺志論』云: ‘氣虛身熱, 得之傷暑’, 熱傷氣故也. 『痿論』云: ‘有所勞倦, 逢大熱而

張介賓은 이러한 분류방식을 한층 발전시켜 陰證에 生冷음식을 잘못 먹어 생기는 증상까지 포함시키고, 『素問·生氣通天論』의 煩則喘喝, 靜則多言'을 暑의 陽證인 中喝로 '體若燔炭, 汗出而散'을 陰證인 中暑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內經』의 원문을 훼손시키지 않고 '體若燔炭, 汗出而散'을 寒과 연결시킨 것으로, 실제로는 滑壽 朱丹溪 吳崑 등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傷寒論」 「金匱要略」 이후 暑證에 대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暑證에 대한 病位는 陽明으로 보고 있고, 증상으로는 고열이 나며, 濕을 잘 끼며, 脈은 洪大하거나 虛한 脈象이 나타나며, 또한 氣虛의 상태가 잘 유발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神志증상에 대한 표현도 일부 나타난다. 發汗解表劑의 사용에 대하여는 劉完素가 여름철 감기에 쓸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李東垣 張介賓 등은 中暑 즉 陰暑인 경우에는 傷寒과 같이 辛溫解表劑로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李東垣은 暑證을 기본적으로 氣虛와 濕熱로 보아 淸暑益氣湯을 창방하였다.

(3) 溫病學에서의 暑證 연구

『內經』 이후 暑證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인 暑證에 대한 연구는 溫病學에서 이루어졌다.

溫病學에서는 暑證을 건조하면서 더운 暑熱病邪와 濕氣가 많이 낀 暑濕病邪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고, 특히 暑溫本證은 暑熱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았다.

暑邪는 마치 불덩이와 같아서 열이 매우 심하게 나는데, 寒과 같이 열로 변화하는 과정이 없이 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陽明熱證의 4대 특징인 大熱 大渴 大汗 脈洪大 등의 증상이 나타

있는데, 이러한 점은 「濟衆新編」과 「方藥合編」 등에서는 中暑, 中喝 등으로 올바르게 시정되어 있다.

나고, 또한 극성한 熱邪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陰液 뿐만 아니라 氣도 소모시킨다. 그리고 여름철에 고온다습한 지역에서는 보통 濕邪를 수반하여 暑濕을 형성하기 쉬우며, 또한 暑濕을 받은 후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거나 에어컨을 많이 켜면 寒에 억압되기 쉬운 특징이 있다.⁶⁴⁾

발병 유형은 暑熱病邪로만 발병하는 暑溫本證과 濕이 낀 暑濕病邪로 발병하는 暑溫兼證, 그리고 暑厥 暑風 등 유사한 병증을 포괄하는 類證의 유형이 있다. 이중에서 「素問·生氣通天論」의 '因於暑' 조문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暑邪의 전형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暑溫本證과 發汗劑의 투여 및 고열이 나지 않는 경우와 관련된 暑溫兼證의 일부본이다.

暑溫本證은 表證없이 바로 陽明氣分證으로부터 시작되며, 대략 급속히 진액을 소모하는 경우와 점진적으로 진액과 氣를 소모하는 경우, 그리고 正氣가 아주 없어지려는 경우의 3 경우가 있다.

氣分證에서 급속히 진액을 소모하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陽明熱證인 大汗 大熱 大渴 등이 나타나고 등골이 오싹해지며 맥은 洪大하면서 扞脈이 나타나고 치료는 주로 白虎加人蔘湯을 사용한다. 점진적으로 진액과 氣를 소모하는 경우에는 발열도 심하지 않고 汗出도 大汗이 아니며, 脈象은 虛數하고, 치료는 王孟英의 淸暑益氣湯⁶⁵⁾으로 한다. 만약 체온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땀이 나면 白虎加人蔘湯證에서 악화된 正氣欲脫의 상태이며, 生脈散⁶⁶⁾을 쓴다.⁶⁷⁾

暑溫兼證에는 暑濕이 中焦에 막혀 있는 경우, 三焦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暑濕이

64) 李劉坤 강의, 임진석 정리, 「임상은병학특강」, 한국, 서울, 대성의학사, 2001년. 52- 54쪽.

65)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2264쪽. “淸暑益氣湯 : 西洋蔘·石斛·麥門冬·黃連·竹葉·荷梗·知母·甘草·粳米·西瓜翠衣”

66)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1048쪽. “生脈散 : 人蔘 15g, 麥門冬·五味子 각 9g”

67) 上揭書, 「임상은병학특강」, 379- 382쪽.

氣를 손상한 경우, 그리고 내부에 暑濕이 울체하고 겉에 寒濕이 울폐되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暑濕이 증초에 막힌 경우는 白虎加蒼朮湯을 쓰고, 濕이 三焦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三石湯⁶⁸⁾을 쓰며, 暑濕이 氣를 손상한 경우에는 李東垣의 清暑益氣湯을 쓰며, 暑濕이 내부에 울체되고 겉에 寒이 울폐한 경우에는 新加香薷飲⁶⁹⁾을 쓴다. 이 중에서 白虎加蒼朮湯, 三石湯은 치료제로 석고가 주요 약물이므로 발열이 매우 심한 상태를 치료함을 알 수 있으나, 李東垣의 清暑益氣湯과 新加香薷飲은 석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열이 심하지 않은 증상을 치료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暑證에 고열이 나지 않는 상태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은 胡天雄이 '體若燔炭, 汗出而散'을 暑證에 고열이 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본 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 즉 暑證에는 마땅히 고열이 나와야 하지만 '暑濕이 氣를 손상한 경우'나 '暑濕이 내부에 울체되고 寒이 겉에서 울폐한 경우'에는 고열이 나지 않는데, 이는 濕의 성질이 속의 열이 겉으로 시원하게 발산되지 못하게 하는 身熱不暢의 상태를 유발하므로⁷⁰⁾ 자체적으로 고열이 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暑濕兼證에서 白虎加蒼朮湯證과 三石湯證은 열이 심하면서 濕이 약간 있는 정도로 볼 수 있고 清暑益氣湯證과 新加香薷飲湯證은 濕이 앞보다는 더 많은 경우로 볼 수 있다.

李東垣의 清暑益氣湯은 평소에 氣가 虛한 데다가, 暑濕을 感受하여 氣가 더욱 상해, 脾가 運化하지 못하여 身熱頭痛, 口渴自汗, 四肢困倦, 不思飲食, 胸滿身重, 大便溏泄, 小便短赤,

舌苔膩, 脈虛한 경우를 치료한다.⁷¹⁾ 이는 益氣固表하면서 清暑化濕하는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暑證에 땀이 나는 경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新加香薷飲은 寒邪가 表에 있어 惡寒 發熱 無汗 혹은 少汗, 頭痛 등과 같은 表證이 있으면서, 暑濕이 속에 있어 熱로 진액이 소모되어 갈증이나 心煩, 小便短赤 등이 있고, 또한 濕으로 인한 胸悶이나 脘腹部 痞滿 등이 나타나는 것을 치료한다. 이는 주로 解表를 위주로 하면서 清暑化濕하는 치료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香薷는 辛溫劑에 해당하지만 麻黃처럼 發汗力이 강하지 않고 방향성이며 化濕하는 작용도 겸한다. 暑熱을 식히는 약으로는 석고가 중요하나 이 유형은 暑熱이 그다지 심하지 않으므로 金銀花 신선한 扁豆花 그리고 連翹로 가볍게 邪熱을 몰아내서 暑熱을 식힌다.⁷²⁾ 그러나, 이 경우에는 寒邪가 表에 있어 腠理를 속박할 것이기 때문에 '汗出'의 症狀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素問·生氣通天論』의 '體若燔炭, 汗出而散'과 부합하는 경우는 李東垣의 清暑益氣湯證뿐이라고 할 수 있다.

暑證에서 『素問·生氣通天論』의 원문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氣分證에서 營分證으로 傳入된 경우이다. 營分證에서 暑熱이 營陰을 손상하면 心煩 不眠 譫語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清營湯⁷³⁾으로 치료하며, 暑熱이 心包를 막는 경우에는 灼熱夜甚, 時時譫語 등 神志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安宮牛黃丸⁷⁴⁾, 紫雪丹⁷⁵⁾ 至寶丹⁷⁶⁾ 등으로 치료한다.⁷⁷⁾ 이러한

71)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2264쪽

72) 上揭書, 『임상온병학특강』, 390-397쪽.

73)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2273쪽. "清營湯 : 犀角 9g, 生地黃 15g, 玄蔘·麥門冬·金銀花 각 9g, 丹參·連翹 각 6g, 黃連 4.5g, 竹葉心 3g."

74)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1414쪽. "安宮牛黃丸 : 牛黃·麝金·犀角·黃連·朱砂·梔子·雄黃·黃芩 각 30g, 珍珠 15g, 冰片·麝香 각 7.5g."

68)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975쪽. "三石湯 : 滑石·寒水石·杏仁·金銀花 각 9g, 生石膏 15g, 金汁(沖) 1술잔, 通草·炒竹茹 각 6g."

69)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1311쪽. "新加香薷飲 : 香薷·厚朴·連翹 각 6g, 金銀花·鮮扁豆花 각 9g."

70) 上揭書, 『임상온병학특강』, 57쪽.

營分證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神志의 이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며, 피부 온도가 높으면서 약간 건조한 灼熱感이 밤에 심하고 낮에는 발열이 높지 않으며, 진액이 많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땀이 오히려 줄어들며, 열이 營分의 陰液을 증발하여 갈증도 오히려 줄어든다.⁷⁶⁾ 이러한 營分證의 특징은 『素問·生氣通天論』에 나오는 ‘靜則多言’의 문구와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정도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 즉 靜을 暑邪가 營分證으로 들어와서 낮에 열이 약간 떨어지고 갈증이 줄어들며 땀이 줄어든 상태로 보고, 多言을 神志의 이상으로 보면 ‘靜則多言’을 暑熱이 營分으로 들어간 것을 설명하는 문구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溫病學에서의 暑證은 뜨거운 불덩이가 몸 속에 바로 들어온 것으로 보아 衛分 表證을 거치지 않고 바로 陽明氣分證으로 발병하여 고열이 나며, 營分證으로 들어오면 발열의 양상이 낮에는 경미하고 밤에는 심한 灼熱夜甚의 상태로 바뀌고 땀도 줄어들고 갈증도 줄어들며 주로 神志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暑證에서 고열이 나지 않는 경우는 暑邪에 濕이 낀 李東垣의 清暑益氣湯證과 新加香薷飲證이라고 할 수 있으나, 땀이 많이 나는 症狀은 李東垣의 清暑益氣湯證에만 나타날 수 있다.

III. 考 察

『素問·生氣通天論』에 나오는 ‘因於暑, 汗, 煩則喘喝, 靜則多言, 體若燔炭, 汗出而散’의

조문에 대하여, 滑壽 朱丹溪 吳崑 張琦 등은 ‘體若燔炭, 汗出而散’의 상황이 暑邪와 맞지 않고 寒邪와 맞는다고 하여 조문을 개정하였다.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은 발열은 陽氣가 寒에 억압당하여 울체되었을 때 발생하고 이러한 때에 發汗解表를 시켜주면 열이 풀어진다고 하는 『傷寒論』 『金匱要略』의 학설 및 후대의 임상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문 개정은 陽氣가 울체되어 발열이 난다고 하는 타당한 病機的인 근거에도 불구하고, 원문을 고쳐야 한다는 심적인 부담⁷⁹⁾과 원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해석할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점으로 인하여 후대의 많은 논쟁을 촉발하였다.

發熱은 朱丹溪가 표현하였듯이 傷寒에서 寒邪에 陽氣가 억울되어 발생하기도 하지만, 暑證에서 불덩이로 비유될 수 있는 暑邪가 表를 거치지 않고 바로 陽明氣分證에 들어와 化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열을 일으키므로 暑證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傷寒과 暑證에서 발열이 일어나는 차이점이라면 傷寒에서는 陽氣가 寒邪에 억울되어 化熱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暑證에서는 그러한 과정 없이 신속하게 고열이 발생하여 시간상 구별이 있다. 그리고 暑熱인 경우에는 대개 壯熱로 표현되는데, 壯熱은 氣分證에서만 나타나는, 인체의 正氣가 충만하고 邪氣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여 고열이 나면서, 正氣가 왕성하다는 지표로 땀이 나는 상태를 의미한다.⁸⁰⁾ 그러므로 단순히 열만 높이 올라가는 고열하고는 구별이 된다.

暑證에 發汗解表法의 사용이 타당한가 하는

75)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1900쪽. “紫雪丹 : 黃芩 500g, 石膏·寒水石·磁石 1.5kg, 犀角屑·羚羊角屑·青木香·沈香 각 150g, 玄蔘 500g, 升麻 1되, 炙甘草 240g, 丁香 120g, 麝香粉末 15g, 水飛朱砂 90g.”

76)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2151쪽. “至寶丹

76) 上揭書, 『동양의학대사전』, 2151쪽. “至寶丹 : 犀角·朱砂·雄黃·玳瑁·琥珀 각 30g, 藿香·冰片 각 0.3g, 金箔·銀箔 각 50片, 牛黃 15g, 安息香 45g.”

77) 上揭書, 『임상온병학특강』, 382쪽.

78) 上揭書, 『임상온병학특강』, 97-9쪽.

79) 원문을 고치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甲乙』 『靈樞』 『太素』 등 다른 주요 판본에 이와 같이 개정된 예가 없기 때문이다.

점은 暑證에 고열이 나는가 여부보다 실제적인 원문개정의 원인이 되었다. 『金匱要略』에서 暑證을 陽明病으로 인식하여 白虎加人參湯의 처방을 제시하였고, 또한 陽氣가 虛한 상태로 보아 發汗法의 사용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暑證에 發汗解表法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太平惠民和劑局方』과 『南陽活人書』에 發汗解表劑인 香薷를 이용한 香薷飲 黃連香薷飲 등이 등장하고 나서 香薷를 이용한 暑證 치료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陽明熱證 치료제인 白虎加人參湯證과 구별되는 暑證의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潔古와 東垣 그리고 景岳의 陽暑 陰暑 분류는 이러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더욱이 景岳은 이를 『素問·生氣通天論』의 원문 해석에 인용하여 원문을 개정하지 않고도 ‘體若燔炭, 汗出而散’을 陰暑라 하여 寒과 연결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汗出’이라는 두 글자를 치료법으로 이해함으로써 上下文例에 어울리지 않는 점이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고, 두 번째는 ‘體若燔炭’이라는 표현이 陰暑의 발열에 합당한 표현인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體若燔炭’은 正氣와 邪氣의 다툼이 매우 심한 상태로 고열이나 壯熱로 표시될 수 있는데, 대개 초기에 傷寒에서는 惡寒이 주 증상이 되고, 溫病에서는 發熱이 주 증상이 되므로⁸¹⁾, 溫病의 發熱이 傷寒보다 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體若燔炭, 汗出而散’이라는 고열 혹은 壯熱의 상태는 ‘寒’보다 ‘暑’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體若燔炭, 汗出而散’을 증상설명으로 본 胡天雉의 주석은 비교적 上下文例에 잘 어울리며, 고열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暑邪에 濕이 낀 李東垣의 清暑益

氣湯證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주석은 暑證에 대하여 분류하고 설명하지 않아, 暑證에는 모두 고열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 暑證에 고열이 나는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胡天雉의 주에서 ‘體若燔炭, 汗出而散’을 고열이 나지 않는 상태로 본 점만 취하고, 이를 暑證에 濕이 끼어 身熱不暢하여 고열이 나지 않으며, 또한 表虛하여 땀이 많이 나서 氣虛한 것을 治療하는 李東垣의 清暑益氣湯證에 대한 설명으로 본다면 잘 부합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고열이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胡天雉은 ‘汗出’이라고 보았고, 溫病學에서는 濕의 성질이 身熱不暢한 것으로 본 것인데, ‘汗出’은 그 자체적으로 熱邪를 푸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李東垣의 清暑益氣湯證에서도 고열이 나지 않게 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素問·生氣通天論』의 ‘因於暑’ 조문의 다른 문구를 보면 ‘汗’은 마땅히 暑證에는 땀이 많이 난다는 표현이고, 煩과 喘喝은 內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陽明氣分證으로 볼 수 있고, ‘靜’은 氣分證에서 邪가 營分으로 전입되어 낮에 발열이 감소하고, 口渴이 심하지 않고, 또 땀도 줄어드는 변화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多言’은 營分證의 神志 症狀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IV. 結 論

暑證에 ‘體若燔炭’과 같은 고열 상태가 날 수 있을까, 그리고 發汗解表法을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溫病學에서의 暑證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찰하여 본 결과, 暑證은 陽明氣分證이 주요 증상이 되어 壯熱이라는 형태로 고열이 나며, ‘暑濕이 끼고 寒이 外部에서 억울시킨

81) 上揭書, 『임상온병학특강』, 3쪽

경우'에는 解表를 위주로 하면서 淸暑化濕하는 新加香薷飲을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조문을 고찰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시 해석해보면 '體若燔炭, 汗出而散'을 暑濕證에 高熱이 나지 않는 '暑濕이 氣를 손상한 경우'인 李東垣의 淸暑益氣湯證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體若燔炭, 汗出而散'을 굳이 '因於寒'의 조문으로 옮길 이유는 없는 것이다.

또한, '煩則喘喝'는 暑溫의 氣分證에 대한 설명으로 '靜則多言'은 暑溫의 營分證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參考文獻

1. 康命吉 著, 卷一 「暑」, 『濟衆新編』, 中 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3년, 40쪽.
2. 馬蒞 撰, 田代華 主校,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中國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년.
3. 朴찬국 著,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韓國,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4. 배병철 주해, 『黃帝內經讀解』, 韓國, 서울, 성보사, 2000년.
5. 傅貞亮 主編, 『內經講義』, 中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6년.
6.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년.
7. 吳崑 撰, 劉之謙 외 2인 編著, 『黃帝內經素問吳注評析』, 中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8년.
8. 王琦 等 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韓國, 서울, 성보사, 1983년.
9. 王冰 撰,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년.
10.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中, 中國, 北京, 北京出版社, 1999년.
11. 용재박경고수화갑기념 편집, 『素問研究集成』 권 1, 韓國,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2001년.
12. 李劉坤 강의, 임진석 정리, 『임상온병학특강』, 韓國, 서울, 대성의학사, 2001년.
13. 張介賓 著, 「雜證模」 『景岳全書』,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년.
14. 張介賓 編著, 「疾病類」, 『類經』,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년.
15. 張琦 著, 王洪圖 點校, 『素問釋義』, 中國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1998년.
16. 張仲景 著, 『注解傷寒論』,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년.
17. 張志聰 著, 鄭林 主編, 『素問集注』, 『張志聰醫學全書』, 中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년.
18. 전통의학연구소, 『동양의학대사전』, 韓國, 서울, 성보사, 2000년.
19.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滙粹』,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년.
20. 朱震亨 撰,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生氣通天論病因章句辯』, 『格致餘論』, 『丹溪醫集』,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년.
21. 陳夢雷 等編, 『暑門』,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第六冊,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년.
22.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 下冊,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년.
23. 許浚 著, 「雜病篇」, 『精校東醫寶鑑』. 韓國, 서울, 도서출판 한미의학, 2001년.
24. 胡天雄 著, 『素問補識』, 中國醫藥科技出版社, 中國 北京, 1991년.
25. 홍원식 校譯, 『黃帝內經素問直譯』, 韓國,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1년.
26. 滑壽 編輯, 汪機 續注, 『讀素問鈔』, 中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년.
27. 황도연 원저, 맹화섭 감수, 『국역편주방약합편』, 韓國, 서울, 영림사, 1991년.